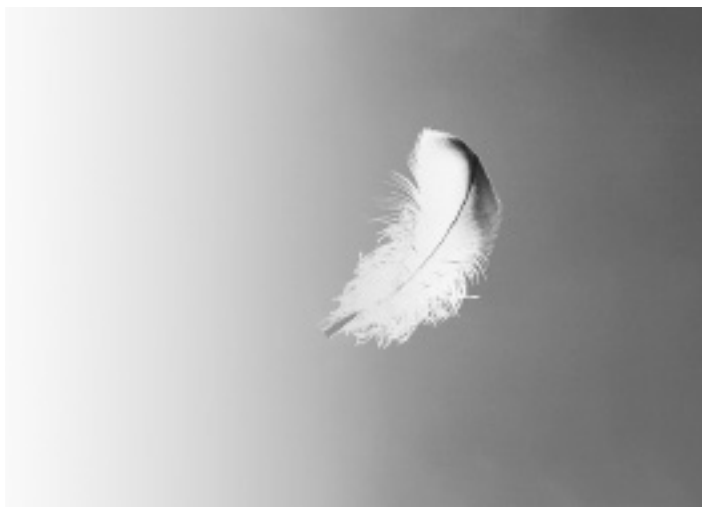


자기를 부분으로 얹으로써 전체가 되다

| 월인 |

마음의 과정을 명확하게 봄으로써 그 과정에 빠지지 않게 되면, 모든 마음의 현상에 에너지가 머물지 않게 되며 곧 응무소주應無所住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현상이며, 이제 '내'가 올라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누가 아느냐 하면 분리된 '내'가 알아요. 부분일 뿐인 '자아'는 전체가 아니고 존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분인 그 '자아'가 '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전체 또는 심진여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버림으로써 또는 자기가 자기를 부분으로 얹으로써 전체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응무소주應無所住라고 합니다(저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已說立義分. 次說解釋分. 解釋分有三種. 云何爲三.
이 설 입 의 분 차 설 해 석 분 해 석 분 유 삼 종 운 하 위 삼
一者顯示正義. 二者對治邪執. 三者分別發趣道相.
일 자 현 시 정 의 이 자 대 치 사 집 삼 자 분 별 발 취 도 상

이미 입의분을 설명하였으니 다음으로 해석분을 설명하겠다. 해석분에 세 가지가 있으니 무엇인가? 첫째는 현시정의요, 둘째는 대치사집이며, 셋째는 분별발취도상이다.

[논論]

이 부분은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고 뒤에서 상세히 나오므로 넘어가겠습니다.

1. 현시정의顯示正義：법장문法章門을 해석함

해석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현시정의顯示正義라는 것은 부처의 올바른 뜻을 밝힘이라는 뜻이며, 그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심법一心法입니다. 법장문法章門 제일 처음 보겠습니다.

顯示正義者, 依一心法有二種門. 云何爲二.
현 시 정 의 자 의 일 심 법 유 이 종 문 운 하 위 이
一者心眞如門. 二者心生滅門.
일 자 심 진 여 문 이 자 심 생 멸 문

현시정의라는 것은 일심법에 의거하면 두 가지 종류의 문이 있으니 무엇을 일러 둘이라고 하는가? 첫째는 심진여문이고, 둘째는 심생멸문이다.

[논論]

일심一心에 두 가지 문이 있는데 첫째는 마음의 진실한 본질, 여여

한 진실 그대로를 가리키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고, 두 번째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을 가리키는 심생멸문心生滅門입니다. 마음에는 일심一心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심一心에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일심一心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이죠. 하나는 마음의 본질적인 문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나타났다 사라지는 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으로, 본질적인 측면을 나타낼 수도 있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측면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是二種門皆各總攝一切法。此義云何。

시 이 종 문 개 각 총 섭 일 체 법 자 의 운 하

以是二門不相離故。

이 시 이 문 불 상 리 고

이 두 가지 문은 각각 일체의 법(모든 것)을 총괄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이르는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서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논論]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각각 일체의 법을 총괄하고 있으며 서로 떠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두 개가 결국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지는 심생멸문의 마음과 본질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장문 해석에 들어가서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심법一心法에서 원효스님이 어떻게 주석을 달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謂染淨諸法其性無二，眞妄二門不得有異。故名爲一。

위 염 정 제 법 기 성 무 이 진 망 이 문 부 득 유 이 고 명 위 일

此無二處諸法中實，不同虛空，性自神解，故名爲心。

차 무 이 처 제 법 중 실 부 동 허 공 성 자 신 해 고 명 위 심

염정染淨의 모든 법은 그 본성에 둘이 없어, 진망眞忘(진심과 망심)의 이문二門에 다름이 있을 수가 없으니, 일一이라고 했다. 이 둘이 없는 것이

모든 법들의 실체인지라, 허공과 같지 아니하여 본성이 스스로 신해神
解하기 때문에 심心 자를 썼다. 그래서 일심一心이다.

[소疏]

앞에서 심진여문은 물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이고 심생멸문은 나타
났다 사라지는 것에 물든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깨끗한 마
음과 물든 마음이 결국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一이라고 했고, 텅 빈 허
공이 아닌 실체이기 때문에 명료한 이해가 가능하여 심心이라고 붙였
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일심一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있다’와 ‘없다’를 떠나 있다

然既無有二，何得有一．一無所有，就誰曰心．
연 기 무 유 이 하 득 유 일 일 무 소 유 취 수 왈 심

如是道理，離言絕慮．不知何以目之，強號爲一心也．
여 시 도 리 리 언 절 려 부 지 하 이 목 지 강 호 위 일 심 야

言是二種門皆各總攝一切法者．
언 시 이 종 문 개 각 총 섭 일 체 법 자

이미 둘이 없는데 어떻게 일一이라고 하겠는가? 일一이 없는데 무엇을
심心이라고 하겠는가? 이러한 도리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는 것이니
무엇이라 지목할지 몰라서 억지로 이름 붙여 일심一心이라고 하였다.

[소疏]

일심一心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이미 둘이 없는, 다시 말해 이것과 저
것을 나누지 않은 불이不二이므로 일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심一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는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심一心이라 이름 붙였다 해서
오직 한마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있다’, ‘없다’
를 떠나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

는 것은 신기한 일이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어떻게든 말로 표현하고자 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일심一心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이 일심一心이 입의분에서 말한 것처럼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으로 나뉘지는데, 애당초 개념화할 수 없는 것을 개념화했으니 오해의 소지는 항상 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승기신론은 사실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책입니다. 본질과 현상 이렇게 나누어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본질은 개념 이상인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나타내보일 필요가 있으니까 심진여문, 또는 본질 등의 이름을 붙인 거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자체가 파도입니다. 파도는 결코 물 자체를 표현해 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보면 어떤 파도이든지 모두 물이잖아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말해도 모두 본질인 것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아무리 표해도 본질의 표현일 뿐이에요. 본질이 그냥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 파도를 심진여 파도와 심생멸 파도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표현하기 위해서 구분한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을 일심一心이라 했을 때, 심진여문은 그것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굳이 말로써 본체와 본체 아닌 것을 나누어 보자는 의미입니다. 일심一心의 체體인 심진여문을 다른 말로 본각本覺이라고도 합니다. 근본적인 깨침이라는 뜻이죠. 또한 염정染淨이라고 말할 때의 정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판사판理判事判의 이理와 같습니다. 이理는 본질을 말해요. 즉 경험적인

인식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를 뜻합니다. 경험적인 인식,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초월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왜 알 수 없을까요? ‘안다’는 것은 항상 분열 속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무엇’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해요. 그러나 본질의 세계는 ‘나’와 ‘무엇’이 나누어지지 않은 세상입니다. ‘나’라는 파도와 ‘대상’이라는 파도가 서로 부딪혀서 생겨나는 새로운 파도, 이것이 얇이나 느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물 자체입니다. 물 자체는 어떻습니까? ‘나’ 속에도 있었고, ‘대상’ 속에도 있었고, 이 둘이 부딪혀 생겨나는 느낌 속에도 있어요. 그 자체가 모두 물이잖아요. 즉 모든 것이 본질적인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지感知(깨어있기™ 용어) 연습을 해 보면,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이 외부의 사물 자체가 아닌 그 사물의 느낌이고, 그 느낌은 내 마음 속에 있으며, 마음속의 ‘내’가 마음속의 ‘대상’을 ‘안다, 느낀다.’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저 밖의 사물을 느낄 수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둘 다 들어있지 않으면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낀다’는 것은 느끼는 주체와 느껴지는 대상이 서로 맞닿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주체가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저것을 건드리겠어요? 어떤 흔적들이 내 마음에 쌓였고, 그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 대상’으로 분리되어 그 둘이 만나 서로 부딪혔을 때 ‘알고 느끼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몸을 마음이라고 비유해보겠습니다. (손을 가리키며) 이 몸에 ‘나’라는 것과 (가슴을 가리키며) ‘대상’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며) 그리고 그 둘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손과 가슴이 닿는

이 모두가 내 몸의 작용인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 작용을 떠나서 마음의 본체를 알려고 합니다.

느낌인 ‘안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몸의 짓입니다. 몸짓, 용용이죠. 즉, 마음의 작용이예요(몸을 마음이라 비유했으므로). 내 몸 중의 하나가 ‘나’ 역할을 하고 내 몸 중의 하나가 ‘대상’의 역할을 해서 둘이 맞부딪혀서 소리를 내요. 이 소리가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낀다’는 것이지요. 이 모두가 내 몸의 작용인 것처럼 ‘느낀다’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 작용을 떠나서 마음의 본체를 알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몸의 작용을 떠나서 몸 자체를 알려고 합니다. ‘안다’는 것은 몸이 손과 가슴처럼 ‘둘로 나누어져야’ 가능한데,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몸 자체를 무엇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굳이 알려고 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내’가 나를 나누어 놓고 이렇게 건드려서 “이게 내 몸이군”, “이게 나구나”. 이라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또는 생각으로 나를 알려고 하는 우스운 짓입니다.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몸 자체인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런 ‘인식’이 없죠. 그래서 이렇라는 것은 ‘경험적 인식’을 초월한 것입니다. 모든 감각적 부딪힘은 경험입니다. 손으로 만져봐서 “아, 이건 핸드폰 배터리야. 핸드폰 배터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경험적 인식이라 합니다. 눈을 통해 아는 것을 안식眼識이라 하고, 귀를 통해 아는 것을 이식耳識이라 합니다.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意도 감각이니까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이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흔적들을 가지

고 경험하는 것을 의식意識이라 하지요. ‘마음으로 건드려서 아는 것’이 의식識입니다. 그런데 이理라는 것은 의식을 포함한 이 모든 경험적인 인식을 초월한 거예요.

심진여문은 일심一心의 본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심생멸문은 무엇 일까요? 심생멸문은 무명無明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무명無明은 밝지 않음이에요. 밝지 않은 마음 때문에 생겨난 느낌이 바로 심생멸문입니다. 심생멸문心生滅門은 무언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늘 마음속에 뭔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화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느낌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외로움도 슬픔도 지겨움도 허무함도 심지어는 권태로움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어떤 ‘고정된 실체’, ‘변치않는 실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른 것들에 의존해서 생겨났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고 말지요.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무명無明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생겨나는데, 꼭 어떤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전 우주가 관여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움직임 하나라도 전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비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에서 특정 세포들이 해독작용을 하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독성물질이 간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싸이토크롬이 독성물질을 해독시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항산화물질은 글루타치온이 중화하고, 그 과정에서 글루타치온 이황화물이 생겨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A는 B의 원인이 되고, B는 C의 원인이 되는 이 많은 과정은 또 다른 장기들과 연관되고, 결국은 온몸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특정 사실의 발생은 어떤 하나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도 결국엔 아무 이유 없음이 되고 말아요. 진실은 그 어떤 것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게 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는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이것은 생겨난 거야(生), 이것은 사라진 거야(滅)’라고 이름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멸하는 마음에 물들었다 해서 염染이라 하고, 사事라고도 합니다. 사事는 일체의 차별되는 모양을 가진 현상계를 뜻합니다. 그에 반해 이理라는 것은 그 현상을 벗어난, 다시 말해 인식과 경험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를 말하지요. 잘 보세요. 인식과 경험이 일어나려면 분별과 차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경험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와 대상’으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경험’할 것 아니에요? 두 개가 나뉘어져야 서로 부딪히겠죠. 모든 경험은 이처럼 나뉜 두 개 이상의 것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관계’이며 이러한 임시적인 관계들로 이루어져 나타난 것이 현상계입니다.

경험 아닌 경험

그런데 본질, 이理는 나누어져 있는 세계를 떠나있기에 분리된 마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듯 ‘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분리되어 있어야 가능하고, 분리된 것은 결코 본질을 ‘알 수 없습

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알고 있고, 체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딜레마예요. '분리' 속에 있으면서 '분리 없음'을 '경험'하려는 것이죠.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그는 알고 있는 이 '분리된 마음'을 그냥 툭 벗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분리된 마음'이 툭 떨어져나간 상태가 되면 뭔가를 안다는 현상이 없고, 경험도 없고, 경험할 누군가도 없습니다. 다시 분리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 내가 경험했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 지난 후의 경험은 그가 했던 진짜 경험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경험이 아닌 경험'이에요. 이것은 경험을 하려고 의도해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험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 구조 속에 빠져들지 않게 됨으로써 오는 놀라운 신비일 뿐입니다. '아, 뭔가를 경험하려면 나와 대상이 나누어져야 하고, 나와 대상이 분리된 마음 상태에서만 경험이라는 것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분리된 마음이 아닌 것은 뭐지?'라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어느 순간 분리된 마음의 구조 전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분리된 마음속으로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분리된 구조 속으로 빠져들지 않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분리 속에 있으면서도 분리 없음이 발견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리 없음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발견된다면 눈으로 보겠습니까,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마음으로 본다 해도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분리되지 않음을 어떻게 마음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과정을 명확하게 봄으로써 그 과정에 빠지지 않게 되면, 모든 마음의 현상에 에너지가 머물지 않게 되며 곧 응무소주應無所住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현상이며, 이제 ‘내’가 올라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누가 아느냐 하면 분리된 ‘내’가 알아요. 신기하죠? 부분일 뿐인 ‘자아’는 전체가 아니고 존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분인 그 ‘자아’가 ‘알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전체 또는 심진여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버림으로써 또는 자기가 자기를 부분으로 얹으로써 전체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응무소주應無所住라고 합니다.

수행을 할 때 육바라밀六波羅密로 수행을 한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육바라밀에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知慧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시를 할 때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뭔가를 베풀고 시혜를 주면서 ‘내가 베풀었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함정에 빠져있는 겁니다. 수행을 하려거든 무주상無住相, 다시 말해 어디에도 마음이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미묘하게 ‘내가 했다’가 있다면 그것은 수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떤 행동이나 재물로 누군가에게 베풀었는데 그때 시혜를 받은 이가 고마워하면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너무 고마워하며 ‘당신은 훌륭해’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이는 미묘하게 자아가 강화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베풀을 받으면 고마워해야겠죠.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고맙다는 말이 도리어 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은 고마워해야죠, 반면 주는 사람이 ‘내가 주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내가 했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

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수련이 되는 것이며, 바로 지금 ‘구별이 없는 이理의 세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플랜’인 거예요.

모든 의도 자체가 ‘움직이는 마음’

다시 심생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생멸문은 무명無明에 따라 움직이고 오염되며, 그 분별의 오염에 의해서 사事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사事는 세상의 모든 일들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분별되어 있지요. 즉 나누어져있고 구별되는 현상계입니다. 그런데 대승에서는 심생멸문 안에 마음의 체體(마음 자체)와 마음의 상相(모양), 마음의 용用(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심진여문에서 말하는 체體와 심생멸문에서 말하는 체體는 조금 다릅니다. 심생멸문에서 말하는 체體는 생멸하는 현상을 따라다니는 체體를 말합니다. 본체는 본체인데 현상에 빠져있는 본체인 것이죠. 우리 마음의 일반적인 상태, 즉 본질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와 똑같아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마음속에도 마음의 체體가 있는데 이것이 현상 속에 빠져버린 본체, 현상에 휩싸인 본체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체體는 작용을 따르는 체體인 것입니다. 체體가 마음의 작용을 따라다녀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이때는 마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상相과 용用을 버리는 훈련을 하면 됩니다. 마음의 모든 상相, 즉 생각과 감정과 느낌, 그리고 작용들, 즉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작용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심생멸문에서는 수련하면서 그 상相을 다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버리고 있는 ‘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생멸문에서는 상相을 버리는 그 마음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相을 버리는 데 쓰이고 있어 필요하기 때문입

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상相을 버리고 있는 ‘그놈’마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저것을 ‘버리고 있는’ 내 마음 자체도 하나의 마음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버리는 내 마음을 ‘버리려’ 하지 말고요. 왜냐하면 버리는 내 마음을 버리려고 하면 버리려는 ‘나’가 또다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도 자체가 일종의 ‘움직이는 마음’인 ‘나’예요. 일종의 주체입니다. 무언가를 ‘하려 하니’ 그것을 하는 ‘누군가’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 마음은 부정하지 말고 ‘바라보는 데’ 사용합니다. 이것도 알아채버려지고, 저것도 알아채 버려지고, 그렇게 모두 다 버려지고 나서, 모든 것을 버리려 하던 내 마음에 오면, 이제 그것을 버리지는 않으면서 이 마음도 버려진 다른 마음과 같은 일종임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써야 되거든요. 모든 알아차림은 분별, 분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 ‘아는 것’과 다른 것은, ‘안다’는 것은 ‘쌓이지만’, 알아차림은 변쩍하고 ‘작용만 하고 사라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통찰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강을 건넌으면 배는 두고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험이 일어나면 그 경험이 남긴 통찰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고, 그 경험과 경험한 자는 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래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깨어있기 워크숍을 들은 오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승기신론 강의를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대승기신론은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을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분석, 분해한 글인데 제목에 믿을 신념 자가 붙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파악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경험을 통해 알아채진 ‘깨달음’이라는 것마저도 표현되는 모든 것은 일종의 ‘믿음’이라는, 불교의 이 ‘혁명적인 선언’을 즐겨 읽어주시시오. 그러하기에 ‘깨달은 개인’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 모두는 우주적 불이불二的 의식 안에 펼쳐지는 ‘현상’임을....

저자 | 월인越因 이원규 | 미내사클럽 대표, 격월간 <지금여기> 발행인. '깨어있기'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찰력게임'을 보급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2016), 《깨어있기-의식의 대해부》(2009), 《관성을 넘어가기-감정의 대해부》(2013),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2008), 《주역-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2009)가 있다.

월인越因은 '인연을 넘어서'라는 뜻이다. 이 세상 만물과 우리 내면은 모두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는 인연법칙의 소산이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다. 그 어느 것도 변함없는 제1원인인 것은 없다. 우스펜스키의 말대로 '미지未知가 미지를 정의하는' 현상일 뿐. 그것은 외부 물질세계와 내부 정신세계를 망라하여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의존하는 '인연'의 '뿌리 없음'을 보면 이제 인연을 넘어서게 된다. 인연의 파도를 넘어서 그곳에 근원의 물만이 있을 뿐이다. 그의 모양은 이런 저런 파도로 가득하지만 모양을 넘어서 그곳엔 오직 아무런 모양도 없는 '물'만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본성은 바로 이 인연의 세계를 넘어서 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월인越因이라 이름하였다. 그 인연의 세계를 넘어 있는 곳을 향하여...